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32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녹) 연중 제 32주일 (23. 11. 12.)

* 오늘 전례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러한 공의회 정신에 따라 1968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지금은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의 결성을 승인하고 해마다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지내기로 하였다. 평신도에게 주어질 사도직의 사명을 거듭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뒤 1970년부터는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 오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중 마지막 전 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면서 2017년부터 한 주 앞당겨 지내고 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지혜서 6,12-16):

12 지혜는 바라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3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 준다.
14 지혜를 찾으려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15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 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16 지혜는 자기에게 맞갖은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 준다.

• 제2독서(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1서 4,13-18):

13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16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17 그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 복음(마태복음 25,1-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
 기 때문이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
 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
 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
 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
 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
 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다.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들을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특히 오늘 평신도 주
 일을 맞이하여,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자신
 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와 사회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남북 분단의 세월 동안 단절되고 대립하며
 지내 온 이 겨레에 은총을 주시어,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대화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소서.

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
 들을 보살펴 주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까지 애
 써 준비한 것들을 아쉬움 없이 잘 펼쳐 낼 수 있도록 도
 와주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가정 공동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이
 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참행복과 생명
 의 가치를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입당 : 21(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봉헌 : 217(정성어린 우리제물)
 성체 : 172(그리스도의 영혼)
 188(천사의 양식)
 파견 : 83(주 찬미하라)

공지 사항

♣ 봉사자

	오늘 주일(12일)	다음 주일(19일)
제1독서	정상현 안토니오	정명용 미카엘
제2독서	우윤정 마리아	정지원 클라라
복사	강윤이 스텔라 안태오 마태오	김익찬 암브로시오 변가인 헬레나
계단·화장실	정상현 안토니오	정명용 미카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90.50 • 교무금 € 1,240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 명함의 내용은
 아주 심플하다.'
 어떤 큰일을 이루고 나면 느끼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을.